

#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 사전인지설과 전략적 후퇴에 대한 반론 —

李 相 昊

(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 론
2. 낙동강 방어선과 맥아더의 상륙작전 구상
3.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의 사전인지 실패
4. 작전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대응
5. 북한의 전략적 후퇴 실패
6. 결 론

## 1. 서 론

북한의 남침에 대한 남한의 초기 대응의 실패로 미군이 개입한 이래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초기 내전적 성격을 갖고 있던 한국전쟁이 국제전화하는 계기는 바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의한 것이었다.<sup>1)</sup> 인천상

1) 이상호,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101호)(2005. 12), 57-62쪽.

륙작전이 가지는 전사적 의미는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점과 함께 성공한 이 작전으로 인해 북진정책을 통한 북한으로의 반격(Rollback)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은 작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작전으로 인한 전쟁의 성격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이 작전이 완전한 기습이었고 북한은 이 작전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sup>2)</sup> 그러나 박명림에 의해 북한노획문서를 통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졌다. 즉 그는 북한의 최고수뇌부가 이미 1950년 8월 21일 남한군과 미군의 인천지역 상륙기도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여 해안상륙에 대비한 명령을 하달했고, 8월 28일 김일성의 명령으로 인천지구에 대한 방어 작전이 개시되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sup>3)</sup> 이에 대해 김광수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392-414쪽; Malcolm W. Cagle · Frank A. Manson,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91-128쪽; Robert D. Heintz,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Jim Dorschner,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Rod Paschall,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Allan C. Bevilacqua,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Jeffery A. Bradford,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Mar/Apr. 2001;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김남균,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맥아더」, 『한국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논쟁의 재조명』(한국전쟁학회 2006년 춘계학술 회의, 2006년 3월 31일); 조성훈, 「한국전쟁사와 맥아더」, 『한국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논쟁의 재조명』(한국전쟁학회 2006년 춘계학술 회의, 2006년 3월 31일).

3)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통권 10호(1997), 219-221쪽; 박명림, 『한국 1950-전쟁과 평화』(서울: 나남출판, 2002), 407-410쪽; 박명림, 「일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년 9월 17일, 20-23쪽.

는 전쟁에서의 기습은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기습이 아니라 전투과정의 전개과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전술적 측면을 들어 이를 반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박명림의 경우 매우 국부적인 사료에 근거해서 너무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리려고 한 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제시된 사료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인천을 유엔군의 상륙지점이라고 못 박아 예측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는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나 정확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이 작전은 기습에 의한 성공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의 두 학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박명림의 경우 북한이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괴멸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인천지역부터 서울지역까지 유엔군의 진격이 13일이 걸린 것이 북한의 철저한 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광수의 지적처럼 이는 쌍방의 작전수행방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sup>5)</sup> 즉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북한은 38선에 따르는 유엔군의 북진을 왜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확인되듯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선 군관급 이상의 요원들만이라도 북상시키라는 충고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북한의 대응과정 그리고 전개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등을 북한노획문서와 러시아외교문서 및 맥아더 기념관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이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현실적이지 못했고 또한 그동안 북한 공식문서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후퇴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4)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국방군사연구소, 1999), 240쪽.

5) 김광수, 위의 글, 221쪽.

## 2. 낙동강방어선과 맥아더의 상륙작전 구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초기 북한의 우세한 화력에 의해 남한의 전면적 후퇴로 이어졌다. 극동미군의 해·공군 지원이 6월 27일부터 이루어졌으나 지상군이 전개되지 않은 전선에서는 쉽게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어려웠다. 결국 전차부대를 앞세운 북한의 맹공아래 8월 1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였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 진행과정 속에 전세를 전환할 작전이 구상되고 있었다.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의 진격이 가속화되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구상은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최초의 상륙작전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sup> 해수작전으로 적의 후방에 우회하여 보급병참선을 공격하는 일종의 섬 건너뛰기 작전(Island Hopping Operation)은 맥아더의 특수한 전법이었다.<sup>7)</sup>

그러나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 하기 이전에 맥아더는 점령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예견하고 1950년 봄에 극동미육군의 상륙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미 해군 및 해병대에 요청하였었다.<sup>8)</sup> 1950년 4월과 5월 사이에 미 해군·해병대로부터 3개

6) 웨인트롭은 인천상륙작전의 기본적 개념이 이미 태평양전쟁시기 수립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1944년 말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상륙작전 구상이 있었는데 이는 대만, 중국연안, 조선(인천), 규슈지역 등이라는 것이다. 즉 1944년 6월 30일자 합동참모본부 문서 JCS 924의 부속문서 B에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 계획이 있었다. 웨인트롭은 이러한 초기 자료가 없었다면 맥아더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Stanley Weintraub, *MacArthur's War: Korean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2000, 106-107쪽.

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488쪽.

의 교관단이 일본에 도착했고 일본 주둔 미군은 대대급까지 상륙작전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맥아더로 하여금 한강전선 시찰 후에 ‘블루하츠(Bluehearts)’라는 작전 구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7월 4일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는 육·해·공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맥아더와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이 상륙지점에 관해 토의를 하였으며 블루하츠 작전이 계획되고 작전일자는 7월 22일로 결정되었다.<sup>9)</sup> 즉 극동미군 사령부 G-3 참모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 통제 하에 있는 합동전략기획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이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으로 반격작전을,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 및 미 제1기병 사단을 돌격상륙부대로 삼아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선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7월 8일에 중단되었고<sup>10)</sup> 블루하트 계획은 7월 10일 무효화되었다.<sup>11)</sup>

맥아더는 상륙 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군산·해주·진남포·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몇 개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sup>12)</sup> 계획으로 그 초안이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 관계 참모들에게 회람되었다.<sup>13)</sup>

1950년 7월 24일 맥아더는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

- 
- 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전투사-인천상륙작전』(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10쪽.
- 9) Roy E. Appleman, 앞의 책, 488-489쪽.
- 1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2-17쪽.
- 11) James Schnabel,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140쪽.
- 12) 흔히 작전명에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맥아더가 이 작전에 크롬철광(Chromite)을 부여한 이유는 그것이 철광석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Stanley Weintraub, 앞의 책, 105쪽.
- 1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5쪽.

다. 거의 예외 없이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유엔군사령부에 대응한 직책의 참모에 임명되었다.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는 부가적인 임무를 더 부여받은 극동군사령부 그대로였다.<sup>14)</sup>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극동미군사령부 작전계획 100-B를 작성하였다. 목표 지역은 인천-서울 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었으며 잠정적인 D-Day는 9월 15일이었다.<sup>15)</sup>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일자라고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과 이 날짜들을 포함하여 전후 2~3일 뿐이었다.<sup>16)</sup> 10월은 기후관계상 인천에 상륙하기가 너무 늦은 시기이다. 5월과 8월 사이에는 인천의 만조 때 물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10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는 비교적 수면이 높다. 9월은 전환기로서 인원과 장비를 상륙시키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달이었다.<sup>17)</sup>

본격적인 작전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상륙부대의 선정이 우선시되었다. 당시 미 제7사단은 낙동강 전선에 있는 24·25사단에 인원이 차출되어 심각한 병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8월 11일 맥아더는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에게 미 제7사단의 부족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군 약 7,000명을 확보하여 일본으로 보내도록 긴급 지시하였다.<sup>18)</sup>

이에 대해 북한은 이후 공식전사에서 일본군 6,000여명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군이 일본으로 이동, 훈련을 받고 배치된 것을 잘못 알고 일본군의 공식참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9)</sup> 당시 전우조(Buddy System)<sup>20)</sup> 편성으로 인해 미 7사단에는

14) "The Far East Command, 1 Jan. 1947-30 June 1957", MA, RG 6, Series 5 Printed Material, Box 107, Folder 3, iii쪽; James Schnabel, F., 앞의 책, 103쪽.

15)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1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9-60쪽.

17) James Schnabel, F., 앞의 책, 144쪽.

1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1쪽.

19) 강석희, 『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11쪽. 이에 따르면 '1950년 9월 중순 2,000여명씩 3차례에 걸쳐 6,000여명의 일본침략군 무력이 미제침략군

8,000여명이 넘는 한국군이 미군에 배속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의 구상은 북한군의 모든 역량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에 대한 방어 능력은 극히 미약하며 북한의 증원 또한 기대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sup>21)</sup> 맥아더는 전략적·심리적·정치적 이유를 들어 서울은 신속히 탈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22)</sup> 이는 서울이 한국의 상업중심지이고 주요도로와 철도의 주요 교차지점이기 때문이었다. 즉 주요 도로는 남으로 대전, 동남쪽으로는 충주와 부산, 서로는 인천, 북서로는 평양, 북동으로는 원산에 이르렀다.<sup>23)</sup> 맥아더는 군산은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조금만 물러서면 뜻하는 대로 포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인천상륙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방어에 소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sup>24)</sup>

8월 24일 인천상륙작전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8군 사령부 자리에 극동군주일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JLC)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웨이블(Weible) 장군을 임명했다. 맥아더는 8월 26일 공식적으로 10군단을 창설하였다.<sup>25)</sup> 그리고 27일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유엔군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두게 하였다.<sup>26)</sup>

7보병사단을 비롯한 10군단의 여러 사단과 연대들에 분산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20)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454쪽.

2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61쪽.

22) Unmarked, "How Inchon was Chosen, etc", Selections,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5.

23)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24) Roy E. Appleman, 앞의 책, 493-494쪽.

25) James Schnabel, F., 앞의 책, 136-159쪽.

26) Roy E. Appleman, 앞의 책, 383쪽.

8월 28일 미 제10군단의 정보 판단은 서울의 적 병력 규모를 약 5,000명, 인천에 약 1,000명 그리고 김포비행장에 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최근의 한 연구는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하여 8월 21일경 방어태세를 완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7월부터 인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부대의 지휘정찰 및 전투명령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서해안 주요도서에 대한 유엔군의 점령에 대비해 방어부대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8월 21일자 전투명령은 한국해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서해 연안의 도서점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이전에 한국해군이 서해안의 일부 도서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은 8월 18일 덕적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하고 8월 20일에는 영흥도에 상륙을 감행하여 8월 23일 확보하였다.<sup>27)</sup> 즉 8월 21일자 전투명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극동군 사령부는 인천앞바다에 대한 정찰을 명령했다. 해군은 8월 31일 클라크(Eugene F. Clark) 대위를 인천의 수로 입구인 영흥도에 보내 적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클라크 대위는 수 명의 일행과 함께 준비한 각종 휴대품을 가지고 8월 31일 군항 사세보를 출발하여 9월 1일 영흥도에 상륙하였고 9월 10일에는 팔미도를 정찰하였다.<sup>28)</sup>

상륙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보고를 극동미군 사령부에 요구했던 8월 28일 이후 계속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던 미 합참본부는 작전 1주일을 앞둔 9월 8일 인천상륙작전을 승인하는 최종적인 청신호를 맥아더에게 보냈다.<sup>29)</sup> 9월 5일경까지도 합참본부는 그들이 지난 8월 28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자 계획에

2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84-88쪽.

28) Eugene Clark, *The Secrets of Inchon: The untold story of the most daring covert mission of the Korean War*(N. Y.: Berkley Books, 2002), 203-231쪽.

2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07-108쪽.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구했다. 맥아더는 9월 11일까지 책임 있는 장교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작전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맥아더의 의도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9월 6일에 주요 사령관에게 훈령으로써 인천 상륙의 D-Day가 9월 15일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sup>30)</sup>

최종적으로 10군단 정보참모부는 서울-인천 지구에 통합 6,500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 북동쪽 3개 지점에는 북한군 107연대가 주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후는 큰 변동이 없었다.<sup>31)</sup>

### 3.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의 사전인지 실패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전개되는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공식전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인지설의 내용을 살펴보자.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사』에 의하면 김일성은 서울, 인천 지역을 점령했을 때부터 미군이 북한군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할 목적으로 인천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950년 7월 경기도 방어지역군사위원회<sup>32)</sup>를 조직했고 특히 인천, 서울 지역의 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도

30) Roy E. Appleman, 앞의 책, 495쪽.

31)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32) 북한노획문서에 의하면 경기도 방어지역군사위원회는 8월 중에 실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지시에 의하여 창설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방어지역군사위원회 조직요강>,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222-226쪽.

불구하고 당시 경기도방어지역군사위원회의 책임자인 이승엽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이 인천, 서울 지구 방어를 강화하는 그 어떤 실제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주력부대를 인천방향으로 기동하라는 김일성의 명령을 당시 군단장이었던 김웅이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서울지구방어에 심대한 난관을 조성했다는 것이다.<sup>33)</sup>

당시 낙동강전선의 인민군은 전선사령관 김책의 지휘아래 전선사령부를 김천에 두고 1개 전차사단 및 2개 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총 13개 보병사단이 마산에서 포항까지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병력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 8군 사령부는 판단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제1군단은 김웅 중장의 지휘아래 2, 4, 6, 7, 9, 10사단 등 6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제2군단은 무정 중장아래 1, 5, 8, 12, 1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sup>34)</sup>

과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를 북한노획문서를 통해 확인해보자.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8월 21일 <전투명령 No. 92>로 인해 당시 인천방어를 담당하던 107보병연대의 방어 작전이 변경되었고 이후 8월 26일자 <전투명령 No. 94>, 8월 27일자 <전투명령 No. 100>으로 보강되어 8월 28일 이후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sup>35)</sup>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군 107연대의 8월 21일 이후의 방어 작전이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보다는 당시 서해안에 상륙한 한국해군과 미군의 함대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즉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8월 18일 한국 해군은 덕적도 및 영흥도 상륙작전을 전개하였고 8월 23일에는 영흥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107연대는 서해안 주요 섬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7월의 북한군 부대의 전투명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3) 강석희, 앞의 책, 20-30쪽.

34)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433-434쪽.

35) 박명림, 앞의 책, 405-408쪽.

당시 인천지역 방어부대는 여러 번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북한노획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지역 방어부대의 문서는 7월 9일부터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천방어를 맡고 있던 북한군 부대는 제23보병연대→제1보병연대(317군부대)→제3보병연대(321군부대)→제107연대로 배치가 이루어졌다.<sup>36)</sup> 즉 7월 초 연대장 태병렬이 이끄는 제23보병연대가 인천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 7월 말에는 연대장 현춘일이 이끄는 제1보병연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8월 중순(확인된 날짜는 8월 14일임)에는 신금철이 지휘하는 제3보병연대가 인천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는 제107보병연대가 인천지역의 방어임무를 맡았다.

북한의 주장대로 7월 초부터 인천지역에 대한 미군의 상륙작전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훈련된 제23보병연대를 그대로 주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가 급박해지자 북한군 수뇌부는 계속해서 후방부대를 전선으로 보내고 있었다. 당시 7월 초에 인천에 주둔한 것으로 확인되는 북한군 부대는 제23보병연대였다. 우선 제23보병연대의 지휘정찰계획표를 살펴보자(<표 1> 참조).

참모장 지룡성, 작전참모 조영택이 작성한 지휘정찰 계획은 인천방어 계획에 대해 주로 소월미도, 송화정 우측고지, 인천각, 49.3고지 등을 주요 방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방어태세 준비 자체가 해안으로 접근할 적에 대한 경비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가 지정된 지역에 배치되어 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태세였다.

이는 7월 30일 참모장 지함임과 작전참모 박규면에 의해 작성된 제1보병연대의 지휘정찰 계획과 8월 11일에 참모장 강도건, 작전참모 리근순에 의해 작성된 제3보병연대의 지휘정찰계획표에 있어서도 확인된다.<sup>37)</sup> 특별히

36)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0-Item 81.

37) <지휘정찰계획>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1, <<증강한 제1보병연대로서 진지방어에 대한 참모부 문건>>; <지휘정찰계획>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1, <<제3보병연대 인천항 방어전투>>.

<표 1> 제23보련 7. 9 지휘정찰계획표<sup>38)</sup>

23보련참모부 1950. 7. 9. 인천에서

경로와 지점	시간		지휘정찰내용	인접부대장들과의 협동공작 조직
	시작	끝		
경로상에서	10.00	10.50	1) 전방구분대들을 위한 운송 및 후송로 선택 2) 지휘소로 가는 도로 확보 3) 지휘소의 배치 확정	
소월미도에서	11.00	13.50	1) 방어전선 확정 2) 참호와 교통로의 계선확정 3) 토목화점 배치지점 확정 4) 대대방어구역의 위치확정 5) 연대의 임무와 그의 임무 확정 6) 인접점 익측 확정 및 그의 보장 대책과 책임자 확정 7) 포병의 화력진지와 성원 및 임무 8) 지휘소 감시소 예비감시소 지휘소 확정 9) 익측의 중심에 있어서의 전면에 있어서의 공병 보장대책 확정 10) 부대별로서 증강기재 할당 11) 전차이용에 대하여 12) 위장기재와 위장 임무 13) 공병작업의 순서와 방어계선, 준비완료 기간 확정 14) 공병구분대의 이용 15) 보고법 확정	
송화정 우측고지	14.00	15.50	1) 상기의 내용을 동일하게 판정	
493고지	16.00	17.50	1) 상기의 내용을 동일하게 판정	
인천각	18.00	19.00	1) 상기 2, 3, 5, 7, 8, 9, 12 동일한 내용판정 2) 지휘소 경비와 방어에 대한 사항판정 3) 예비대의 반돌격 방향 판정, 반돌격 임무 판정 4) 전차예비대와 반전차 예비대의 화력진지 그의 임무 및 행동 할 수 있는 방향 판정 5) 곡사포지휘관들과의 협동공작 조직 6) 구두전투명령 하달	

38) <제23보련 7. 9. 지휘정찰계획표>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1, <<제3보련 인천항 방어전투>>.

북한이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알고 대비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1950년 7월 북한은 특별히 인천지역에 대해 미군의 상륙을 예견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각 보병연대의 전투명령서철을 확인해보자. 전투명령서철에 의하면 박명림의 주장대로 8월 20일경 이후에 인천지역에 대한 방어태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특히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8월 11일경 작성된 제3보병연대의 전투명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만약 북한이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3보병연대와 제107보병연대를 전환하기 보다는 증강 내지 보조 부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했을 것이다.

우선 각각의 전투명령서를 살펴보자. 1950년 7월 9일 제23보병연대 참모부 참모장인 지룡섬이 작성한 전투명령서는 다음과 같다. 이 문서에는 전투명령 번호가 기입되지 않았다.

**전투명령 No. 39)**

제23보련 참모부 1950. 7. 9 인천각에서

- 1) 적은 공화국인민군에 추격을 받아 1950. 6. 19에 소함정으로 퇴각하여 현재해상에 산재하고 있는바 기회만 있으면 인천항구에 상륙하여 자기들의 항공군과 동시에 인천을 점령한 후 다시 경성을 자기의 기지로써 회복할 기도를 가지고 있다.
- 2) 연대는 군단의예비대로써 땅크 중대와 사단의 포병연대 1, 2, 대대의 지원하에 공병대대 1중대 1소대와 함께 아군 추격을 받아 퇴각한 적이 다시 인천항구를 상륙할 기도를 불허하며 만약 상륙하였다면 적을 우리 해안에서 그를 격파하며 인천 항구 및 시가지를 사수할 임무가 있다. 화력체계 조직완료는 1950. 7. 7, 18:00까지이며 방어작업 완료는 1950. 7. 10, 18:00까지이다.

39) <전투명령>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1, <<제3보련 인천항 방어 전투>>.

- 3) 우측에는 강화도에서 아군육전대가 상륙해야 방어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인접부대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천지역에서 6월 29일(6월 19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철수한 한국군이 인천 연안 근처의 섬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과 북한군의 인천 방어가 이러한 해상에 있는 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전투배치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 8월 1일 작성된 제1보병 연대(제317군부대참모부 작성) 전투명령서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8월 13일 제3보병 연대(제321부대)에서 작성한 전투명령서 역시 앞의 두 문서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 전투명령<sup>40)</sup>

제321부대참모부 1950. 8. 13, 18:00 인천에서

1. 적은 공화국 인민군대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퇴각하다가 다시금 인천항구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서울 수도를 점령할 목적으로서 입항하고 있는 바 덕정, 용유, 영흥면 일대에 함선들을 기회만 있으면 인천항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
2. 본 연대는 포병 1개 대대와 보병 1개 대대를 배속 받아 적들의 항구접근을 불허하며 상륙하는 적을 해안에서 결정적으로 격퇴 분쇄하는 동시에 인천 항구를 고수할 목적으로 주안염전으로부터 493고지까지의 해안을 방어한다. 화력체계조직완료는 8. 28(원래 8월 13일로 적혀 있다가 고쳐 씀), 24:00까지이며 방어작업완료는 1950. 9. ( )까지이다.
3. 우측에는 강화도, 좌측에는 잔병소탕 및 해안방어 임무를 받은 부대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군의 상륙작전을 분명하게 예견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40) <전투명령>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1, <<제3보병 인천항 방어 전투>>.

있다고 지적한 8월 28일 인천방어지구사령부 <전투명령 No. 3>을 확인해보자.<sup>41)</sup>

조선반도의 남동에서 패배와 급속적인 퇴각이 있는 후 적은 육군 및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 방어를 유지하며 조선반도 남반부 경상도 일각을 보지하고 있다. 적의 함대는 조선의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순항하면서 대대까지 되는 역량으로 아군 후방의 개별적 섬들과 해안지역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있다. 전선으로부터 아군역량의 일부분을 끌어당길 목적으로 전선공급로를 절단하는 해군기지 창설 및 서울 위협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 지구에 적측으로부터 작전 전 상륙대가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내용이 앞에서 제시한 인천방어계획과 관련한 다른 전투명령서들과 달리 완전한 방어 작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인천해안에서의 방어전투계획표를 분석해 보면 박명림이 주장하는 8월 28일 이후의 방어계획과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안에 대한 이러한 방어계획은 미군의 상륙작전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상되는 지점(인천, 원산, 목포, 진남포, 군산)에 대해 특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9월 6일 인천 지역을 담당하던 884군부대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참모장 리규섭, 정찰참모 김문호가 작성한 지령에는 북한이 9월에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거나 이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절들이 눈에 띈다. 즉 이는 소규모 부대에 의한 해안 상륙기도나 적의 간첩 등을 잡기 위한 통상적 감시체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1) <전투명령 No. 3> NA, RG 242, Box 768, SA 2009, Box 7, Item 80, 《제107보연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884군부대 참모부 지령<sup>42)</sup>

적은 다시금 군사적 모험으로서 기회만 있으면 인천 또는 서울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천항의 기습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 부대는 이러한 기도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들과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천항을 방어하고 우리 조국 수도서울시를 방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분대로서 군대내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감시 강화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령한다.

- ① 매감시원들로 하여금 자기 감시 구역을 철두철미하게 인식케 하기 위하여 감시략도를 작성하여 1부는 감시소에 배치할 것이며 1부는 참모부에 9월 8일까지 보고할 것
- ② 사업의 증거물로 되는 감시일지를 제때에 기입하여 그의 결과를 2시간에 1회씩 전화로 오후 5시에는 그날 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발견한 사실과 그의 지점 영양, 상선, 어선, 발동선 등이 몇 석이 왕래하였으며 그에 인원 물품 목적지들을 자세히 통계를 내어 보고할 것
- ③ 자기 감시구역내에 있는 상선, 어선, 발동선들이 하루 평균 몇 척이 왕내하며 그의 목적지 등을 기입하여 9. 8일까지 보고할 것
- ④ 자기 감시구역내에 있는 공장 사택, 개인집 통계 등을 장악하고 있을 것

1950. 9. 6

제884군부대 참모장 리규섭, 정찰참모 김문호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러한 해안지대에 대한 방어문제가 김일성의 선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다. 당시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던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과 중국 지도부가 작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 상황에 관한 평가를 소련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 평가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 점령 주둔군 12만 명 중 약

42) '884군부대 참모부 지령' NA, RG 242, Box 771, SA 2009, Box 7, Item 133, <<각 구분대 감시구역 강화에 대하여>>.

6만을 한국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 병력들은 부산, 목포, 마산 등의 항구에 상륙하여 철도를 따라 북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sup>43)</sup> 따라서 북한군은 이 항구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남으로 신속히 진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up>44)</sup>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에 여러 번 상륙작전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역시 특별히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외교문서에 따르면 1950년 8~9월 초순 마오쩌둥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정부의 대표를 접견하고 전쟁 상황 전개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다. 이 때 마오쩌둥은 북한이 소련군과 중국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모든 전선에 군사력을 산재시켜서 적을 전멸시키려고 하지 않고 적군을 몰아내어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군은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오쩌둥은 모든 북한 군사력을 전투에 투입하지는 말아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가능한 경우 병력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신속한 퇴각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sup>45)</sup>

후에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중국은 7~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최고지도부에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sup>46)</sup> 주지안 룡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7월 중순과 하순, 그리고 9월 중순에 우리는 세

43) 1950년 6월 맥아더 휘하의 전투병력은 일본에 있는 4개의 보병사단과 7개의 대공포대대, 오키나와에 있는 1개의 보병연대와 2개의 대공포대대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주 전투부대는 일본 중부지방에 있는 제1기병사단과 북부 지방과 홋카이도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큐슈의 제24보병사단, 남부 중앙에 위치한 25보병사단과 오키나와에 있는 제9대공포여단들이었다. 극동군예하의 주 전투부대인 8군은 1950년 6월 25일 경 원래 인가된 병력의 93%를 유지하고 있었다. James Schnabel, F., 앞의 책, 54쪽.

44) 1950년 7월 2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1994. 7. 20. 내부용 번역본).

45) 1950년 8~9월 초순,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1994. 7. 20. 내부용 번역본).

46) 주지안 룡 지음·서각수 옮김,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서울: 도서출판 역사넷, 2005), 220쪽.

차례에 걸쳐 조선 동지들에게 적들이 해상으로부터 인천과 서울로 쳐들어와 인민군의 뒷길을 끊어놓을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인민군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적절히 북쪽으로 철수하여 주력을 보존하고 장기간에서 승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전한다.<sup>47)</sup>

8월 하순이 되어 중국 지도부는 미군이 상대의 의표를 찢러 공격해 오는 경우를 크게 걱정했다. 8월 23일 총참모부 작전실 주임 레이잉푸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UN군이 인천에 상륙해 올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레이잉푸가 나중에 발표한 증언록은 총참모부 작전실이 정리한 UN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행할 가능성을 지적했다.<sup>48)</sup>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이 내용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요한다. 중국지도부가 인천지역만을 선택해서 정보를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이외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 모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를 받지는 못했다.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결국 후방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하게 만든 것이었다.

역시 북한의 전쟁수행을 세밀히 알고 있던 소련의 입장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 1950년 7월 4일 평양에서 슈티코프가 스탈린(핀시라는 가명을 사용)에게 보내는 비밀전보에서 7월 4일(7월 3일의 오기)<sup>49)</sup> 김일성·박헌영과 면담하였을 때 그들은 북한군이 점거하고 있는 영토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때 김일<sup>50)</sup>성은 그에게 북한 후방의 항구에 대한 미군의 상륙 내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미군의 공중 강습 가능성에

47) 『毛澤東致斯大林電(手稿, 未發出)』(1950. 10. 2), 김정일 지음·홍편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서울: 논형, 2005) 395쪽에서 재인용.

48) 주지안룡 지음·서각수 옮김, 앞의 책, 164-166쪽.

49) 이 전문은 7월 4일 새벽 0시 5분에 발송하여 오전 3시 15분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외무부번역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0) 핀시는 스탈린의 중국식 이름이다.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저·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서울: 세경사, 1993), 374쪽.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 탄약 보급을 증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하였다.<sup>51)</sup>

또한 김일성은 7월 9일 친필서명으로 북한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 슈티코프에게 해안 방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 서신에서 해안저지용 수뢰 2,000개와 어뢰정 10척, 그리고 어뢰정용 어뢰 3개 전투 정량을 요청한 것이다.<sup>52)</sup> 하지만 북한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만약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왜 인천 수로에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인천 앞바다에서 미 제10군단이 발견한 기뢰는 총 12개에 지나지 않았다.<sup>53)</sup> 즉 김일성이 요청한 수뢰는 인천지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북한군 수뇌부가 대규모의 연합군 상륙작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소련은 미국의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최소한 8월 28일까지도 소련은 이 작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여 진다. 8월 28일 편사가 평양 소련 대사에게 보내는 암호전보에 의하면 소련공산당(불쉐비키)중앙위원회는 곧 미국 세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김일성에게 전선의 안정을 위하여 공군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충고하라고 지시하였다.<sup>54)</sup>

51) 슈티코프가 편사(스탈린)에게 보내는 비밀전보, 1950년 7월 4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료회의 의장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맹 특명전권대사 때. 에프. 슈티코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 1950년 7월 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보충문헌, 1949~1953』.

5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30-131쪽.

54) 편사가 평양 소련대사에게 보내는 암호전보 75021호, 1950년 8월 28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보충문헌, 1949~1953』.

#### 4. 작전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대응

1950년 9월 12일 미·영 혼성의 기습 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월미도와 소월미도에는 적 제 918해안포연대 제2대대의 2개 포대 지원을 받는 북한군 육전대 소속 제226연대의 예하 부대 약 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5)</sup>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손쉽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9월 16일 미 해병사단이 전진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진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총 손실은 전사자 4명과 부상자 21명뿐이었다.

김포비행장이 탈환되었을 때까지도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인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김포를 지나 서울 쪽으로 작전 구역을 넓혀 나가자 북한군은 낙동강전선으로 이동 중이던 부대까지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9월 18일 김일성이 오랜만에 중국 대사 니즈랑과 만나 인천 상륙 후 3일 간의 전황을 소개하고, 인천 방면에는 갓 편성된 인민군 2개 연대밖에 없고 후원 부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군은 이미 서울에 압박해오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sup>56)</sup>

저우언라이는 주중 소련대사 로신 대사와 군사고문관 코토브코노프를 초치하여 9월 15일 시행된 미군의 인천 상륙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질문하고 중국지도부는 평양 라디오 및 신문보도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의 충고와 판단이 북한 측에 의해 무시되

5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23-139쪽.

56) 주지안룡 지음·서각수 옮김, 앞의 책, 188-189쪽.

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다만 만일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10만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륙한 적군을 섬멸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sup>57)</sup>

인천을 방어하던 부대는 북한 해군 소속 육전대의 제226독립연대와 이들을 지원하던 제918포병연대 이하의 2개 포대, 그리고 소규모의 지원부대들이고 경인 국도를 따라 북한군 18사단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07보안연대는 김포반도에 전개되었다. 북한은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을 개시하던 시기에 서울을 떠나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이던 적 제18사단을 다시 서울 쪽으로 끌어 올리고 수원 주변에 있던 제70연대를 이들과 합류시켰다. 미 해병 사단이 도하 작전을 준비 중이던 무렵, 서울 방어에 동원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20,000명으로 추산되었다.<sup>58)</sup>

당시 경인지구를 담당하던 전선지구 경비사령부 참모부에서는 문화부사령관 김두환의 이름으로 전투명령이 하달되고 있었다. 즉 서울에 위치한 전선지구 경비사령부 문화부사령관 김두환은 107연대에 김포비행장을 재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9월 21일 서울에서 영등포로 진격하는 연합군을 막기 위해 107연대 31대대, 33대대, 포대대의 협동 동작으로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전투명령에 의하면 이러한 작전은 진격하는 유엔군의 후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9)</sup>

이러한 전투명령에 대해 107연대장은 상급 보고에서 김포지역에 있는 미군을 격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진에서 107연대 참모장 박근만에 의해 작성된 전투보고는 오전 2시 30분 김포시를 해방시켰고 4시에 김포비행장을 탈환할 작전을 폈던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곧 미군의 반격을 받아

57) 1950년 9월 18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1994. 7. 20. 내부용 번역본).

5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217-220쪽.

59) 경비사령부 참모부 ‘전투명령’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2 <<5656부대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퇴각명령을 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실제로 제대로 된 반격작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전투보고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우선 작전 지시를 수행했으나 역부족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sup>60)</sup>

108연대 36대대장 리창실은 같은 날 추신리 대대본부에서 전선지구경비사령관 앞으로 보내는 정찰보고에서 김포지역이 미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대대 정찰 참모 박병식은 인민군 61연대 31부대 정찰원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인민군 61연대 31부대는 20일 밤 금포를 향하여 전진하다가 21밤 새벽 5시경에 금포에 완전히 도착 못한 지점에서 미군으로부터 타격을 받았다 하며 땅끄 11대와 보병 1개 중대로 대항하고 있으며 적은 금포에서 방어하고 있다함.<sup>61)</sup>

통신수단의 미비와 연합군의 맹공으로 인해 북한의 전선사령부는 이러한 전황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656부대 작전참모 장인준이 문화부사령관에게 보내는 보고에 의하면 107연대에 의한 역습이 완벽히 달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형을 전선사령부에 보고한 결과 계속 대오를 수습 금포방향에서 적을 타격 주라는 명령입니다. 금일 저녁 금포비행장에는 보안대부대들이 습격을 감행하는 모양인데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급속히 지휘부 인원들을 수습조직하여 연대를 지휘하며 107연대는 강안에 방어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금포 방향에서 적을 타격주며 적이 세력을 확

60) 107연대 '전투보고' 1950년 9월 21일,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3 <<5656부대 참모부 상급보고서철>>.

61) 108연대 36대대 '보고' 1950년 9월 21일,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3 <<5656부대 참모부 상급보고서철>>.

장하지 말도록 하며, 자기의 진지를 유지하면서 적을 억측과 후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107연대가 방어로 이전하고 금포 일대에서 타격을 주지 않으면 적은 계속 북쪽으로 지향할 것이라는 상부의 의도입니다.

제33대대는 신속히 종전에 하달한 사령관 동지의 명령대로 금포 방향에 지향하여 행동하여야 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부대 행동은 앞으로 사령관 동지에게서 하달될 때까지 이상 내용대로 행동하합니다.

107연대의 105mm포 2문은 임시 파견되는 참모장 동무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시니 그대로 포를 이동 수습하여야 하겠습니까.<sup>62)</sup>

결국 북한군은 김포 지역을 다시 탈환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의 방어 준비가 부족했지만 대규모의 유엔군 상륙으로 인한 양륙작전의 지연으로 9월 21일에서야 해상에 머물고 있던 제10군단의 지휘소가 인천에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알몬드 장군은 전 육상 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sup>63)</sup>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해 스탈린은 다음 사항을 언급하였다.

1. 인천 및 서울지역에서 전개된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된 북한군의 전술, 즉 각 대대와 연대의 분산배치 및 전투는 실수였다.
2. 동 작전은 주전선으로부터 정예 병력을 차출하여 서울의 동부와 북부에 강력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었다.<sup>64)</sup>

9월 21일 소련은 북한군의 패배를 예상하고 벌써 평양방어를 위한 항공부대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날 바실리에프스키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평양 방어를 위해 40대의 야크-9 전투기로 편성된 전투비행연대 이

62) ‘작전참모 장인준이 문화부사령관앞으로 보내는 보고문’ 1950. 9. 21. 23.00,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 3 <<5656부대 참모부 상급보고서철>>.

6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47-248쪽.

64) 1950년 9월 20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1994. 7. 20. 내부용 번역본)

등을 건의하고 있었다.<sup>65)</sup>

그렇다면 당시 예하부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북한노획문서를 통해 살펴 보자. 107연대 참모장 대리 박근만이 의하면 도선과 조수관계로 인해 김포 군에 대한 해방 작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연대장에게 보고하였다. 9월 22일 연대장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31대대와 33대대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한 도선과 조수관계로 인해 김포에 대한 도하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도 23일까지는 김포비행장을 점령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었다.<sup>66)</sup>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107연대는 김포지구의 전투에서 계속 실패하게 되었다. 특히 미군이 상륙한 이후 접전을 치루고 있는 연대에서 탄약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9월 24일 107연대 참모부에서 전선지구경비사령부 5656부대 앞으로 보내는 <전투보고 No. 3>은 각종 탄알과 보급물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남아 있는 2개 대대의 역량은 비무장 대원이 수다하며 무장대원은 탄알이 부족되어 전투를 계속할 탄알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적들은 계속 금포시나 양곡리에 병력을 강화하고 아방에게 진공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포비행장을 점령할 결심으로 사령부에서 우리의 후방에 지원부대를 요구합니다. 각종 탄알과 후방 조직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sup>67)</sup>

결국 107연대 참모부는 9월 24일 오후 8시 문화부사령관에게 보내는 보고문에서 각 대대의 실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엔군의 화

65) 바실리에프스키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 1950년 9월 21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66) '107연대 참모장 대리 박근만이 107연대장에게 보내는 보고' 1950. 9. 22. 8.00,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 3 <<5656부대 참모부 상급보고서철>>.

67) 107연대 참모부 '전투보고 No. 3' 1950. 9. 24.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3 <<5656부대 참모부 상급보고서철>>.

력에 당황하여 전투원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공격명령에 응하지 않아 후퇴하고 있으며 김포시내의 인민들도 분산되어 ‘반동파의 치안대’가 조직되어 북한군을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총살하고 있고 심지어 연락병 파견도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찰병을 파견해도 치안대의 검문에 걸려 돌아오지 않고 있고, 더욱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전투 시 전투원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68)</sup>

여기서 한 가지 논의할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예상치 못한 기습이 아니었으며 북한은 대비태세를 높여 상당 정도로 준비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 결과 상륙 이후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진격에 13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이는 당시 인천 연안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간과한 판단이다. 당시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세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2번째에 달할 만큼 매우 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기본 상륙함정이 해안에 접안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과 오후를 합해 약 3시간에 지나지 않았다.<sup>70)</sup>

모든 부대의 상륙은 적어도 5~7일 이상이 예상되었고 한강도하 장비도 해상수송이 필요했다. 따라서 서울수복 13일은 결코 느린 것이 아닌 것이다. 인천상륙이 개시되던 당초부터 해안지역에서는 물론 그 후 전투부대가 진격하는 만큼 근무지원 소요는 더욱 증가하게 마련이어서 이때까지도 군

68) ‘107연대 참모부가 문화부사령관에게 보내는 보고’ 1950. 9. 24. NA, RG 242, Box 806, SA 2009, Box 9, Item 66.3, 《5656부대참모부 상급보고서철》.

69) 박명림의 경우 북한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인천작전의 성공 이후 북한군의 괴멸 상태가 상상외로 심각하였다고 설명하여 서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완벽한 준비가 있었다면 북한군의 퇴각도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논리적 설명이 된다. 박명림, 앞의 책, 440-442쪽; 한편 스톨피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대소련작전인 바바로사 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을 비교하며 독일의 전격작전에 비해 유엔군의 서울 진격의 지체는 미군의 야간의 행군중지, 적에 대한 효과적인 정찰운용 부재 등 미군의 전투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Russel H. S. Stolfi, “A Critique of Pure Success: Inchon Revisited, Revised, and Contraste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8, Issue 2, Apr. 2004, 522-524쪽.

7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9-60쪽.

단 전반에 걸쳐 수송 수단이 원활하지는 못했다.<sup>71)</sup>

전행적인 상륙작전에 있어 군수 기능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미군의 전투 전개가 충분한 보급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당연한 시간 소요라고 볼 수 있다.

10군단의 보고에 의하면 사살 14,000명, 포로 7,000명이었다. 인천 상륙 이전의 적정 판단에서는 조직적인 부대로 서울에 있는 전 병력을 약 5,000명으로 보았었다. 실제로는 서울에만 약 8,000명이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별도로 5,000명의 적 병력이 있었으며, 인천 상륙이 감행된 뒤에 증원된 북한군 부대가 적어도 20,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작전 결과에서 밝혀졌다. 인천-수원-서울 일원에서 전투에 가담한 적 부대는 30,000명 이상이였다.<sup>72)</sup>

당시 북한군 내의 군인들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했는지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전 당시에 관한 문건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미 제10군단에서 포로로 잡힌 서울연대 장철 대위의 심문 기록을 보자.

서울연대 대위였던 장철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 서울 연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는 9월 16일에서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이 당시 그는 서울연대 제1대대 1중대장 대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연대는 서울과 그 근교에 방어망을 형성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서울연대는 이 당시 서울에 주둔한 유일한 부대였다. 서울연대에 지원병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없었다.

장철은 상급자로부터 '서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죽음으로라도 사수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서울연대는 이 경우(Lee Kyong U) 대좌가 이끌고 있었다. 장철은 실제적인 전투훈련을 받지는 않았다. 서울 연대의 인원들은 고작 길어야 2달 짧게는 15일의 군사훈련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서울연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장철은 북한군내에 많은 사상자를

7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286쪽.

7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343-344쪽.

불러온 미군의 공중 폭격으로 인해 1950년 9월 22일 경에는 서울 사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sup>73)</sup>

장철 대위에 의하면 서울연대의 장교 또한 미군의 상륙을 9월 16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연대의 전투원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27여단은 서울 북쪽 금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철군(Lee Chul Kun)은 이 여단의 문화부대대장이었다. 1950년 9월 초, 고위 장교 사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군이 원산, 인천 혹은 목포에 상륙할 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돌았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27여단은 38선과 평행한 서울 북쪽 24km 지역을 방어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는 미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북쪽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남부 전선에의 북한군 주요 부대에 관한 소식은 알 수 없었다. 빈약한 통신수단으로 인해 더 이상 남부전선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었다. 이철군은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죽음으로서 이 지역을 사수하자”고 자주 강연했다. 27여단은 남쪽으로부터 지원병을 받지 못했다. 27여단은 강연길(Kang Yon Kil) 여단장과 참모장 신리봉(Shin Ri Bon)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

27여단의 부대원들은 평균 고작해야 20여일 간의 훈련을 받았을 뿐이다. 상륙한 연합군에 대해 그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74)</sup>

27여단 이철군 중좌의 심문기록에서도 북한은 열악한 통신 수단으로 인해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더욱이 상륙한 연합군에 대해 정확한 정보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볼 때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정확히 인지하지

73)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74)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못했고, 또한 해안 방어를 위해 배치된 주요 전투부대들도 급조해서 마련한 임시부대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북한의 전략적 후퇴 실패

북한은 인천상륙작전 이후를 조국해방전쟁 제2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의 전략적 방침은 '변화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적에 대한 새로운 결정적 타격을 준비하며 전쟁의 전반적 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적들의 진공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 주력부대들의 전략적 후퇴를 보장하며 다른 편으로는 새로운 후비부대를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75)</sup>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9월 26일 마트베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암호전문에 의하면 이미 북한군은 괴멸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암호문에서 북한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서부(서울)과 남동부(부산)으로 파병된 북한군은 상황이 어려워졌다. 서울에 있는 적의 탱크부대는 충주지역에서 전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인민군 제1군이 포위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인민군은 주로 미 공군에게 큰 손실을 당하고, 거의 모든 탱크와 대포를 상실한 채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으며, 수송시설 등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무기와 탄약도 부족한 형편이다. 통신체계가 마비되어 상부에서 하부로의 명령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sup>76)</sup>

75) 강석희, 앞의 책, 17쪽.

76) 마트베예프가 핀시(스탈린)에게 보내는 암호문 No. 600262/N, 1950년 9월 27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따라서 이 전문에 의하면 북한군은 그들이 주장하듯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전사에 의하면 낙동강전선 부대들이 전략적 후퇴를 하는 목적은 주력을 보존하고 확대 강화하여 강력한 예비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이후 반공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함안에 주둔하던 북한군은 지리산에 집결, 소백산맥을 따라 북상 자강도 지역으로 기동하고 낙동강에 있던 전선서부 부대는 소백산줄기와 태백산 줄기를 따라 북상 38선 이북으로 기동하였고 포항방면의 북한군은 해안을 따라 조직적 후퇴를 하여 장진 일대로 기동하였다고 전한다.<sup>77)</sup>

북한군이 10월 10일 현재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킨 병력은 약 93,000명으로 인원수로 볼 때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병력은 급히 인원만을 보충한 것이었고 지역별로 7월 중에 동원되어 무기도 없이 목총으로 훈련받던 독립 연대들이었다.<sup>78)</sup> 그러나 이 숫자는 아래에서 밝혀지듯 순수하게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한 숫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9월 현재 북한군의 낙동강 전선 병력 현황은 약 98,000명이었다.<sup>79)</sup> 조성훈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 9, 10월 2달에 걸쳐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의 총수는 약 60,000여명에 달했다. 더욱이 11월경에는 추가로 약 35,000여명의 포로가 사로잡힌 것으로 나타난다.<sup>80)</sup> 전선에 있던 북한군이 정확히 얼마나 38선 이북으로 후퇴하였는지는 계산할 수 없으나 거의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77) 강석희, 앞의 책, 83-85쪽.

78) 김광수, 「인천상륙 이후 북한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한국전쟁 시 한·미 군사적 역할과 주변국의 대응』, 2003년 6월 26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185-186쪽.

79) Roy E. Appleman, 앞의 책, 395쪽.

80) 조성훈, 「한국전쟁 중 유엔군의 포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998. 9, 10-17쪽; 최근 연구에 의하면 10월 22일까지 사로잡힌 포로의 수는 8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정확한 포로 수를 계산하기에는 매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북한군의 주력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조성훈, 「한국전쟁사와 맥아더」, 『한국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논쟁의 재조명』(한국전쟁학회 2006년 춘계학술 회의, 2006년 3월 31일), 10쪽.

포로로 잡혔고 이후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킨 병력 수는 남한에서 강제로 끌고 간 10만 명의 인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된 부대를 조직적으로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부사령관 김두환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후방과의 연락도 단절되었고 따라서 보급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현실을 보고하였다.<sup>81)</sup> 여기에 더하여 그는 부대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부대 지휘관들이 사복을 입고 전장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부대제도 확립에 관하여

#### - 군 풍기 단속

- 1) 적과의 전투가 빈번히 계속됨에 따라 지휘관으로부터 자기 대오를 장악하지 않으며 전투원으로부터 군복을 버리고 사복을 착용하며 심지어는 군관까지 사복을 입고 다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2) 직일근무 강화  
대대에서 임명하는 부대총직일관은 전체부대 행동과 부대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항공대책을 강구치 않고 자기임무를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심지어는 1950. 9. 29 총직일관은 자기위치에도 있지 않고 낮에 잠을 자며 야간에는 순찰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 경비소대에서 파견한 잠복병 3명은 9. 29. 3시경에 전부 잠을 자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총직일관과 그에 해당하는 구분대장이 책임짐으로 나는 총직일관과 경비소대장에게 경고 처벌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9. 30까지는 완전히 대대 및 구분대에서 제도를 확립할 것이다.<sup>82)</sup>

81) 경미사령부 참모부 <전투명령 No. 11> 1950. 9. 29, NA, RG 242, SA 2009, Box 9, Item 66.2 <<5656부대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82) 경미사령부 참모부 <전투명령 No. 10> 1950. 9. 29, NA, RG 242, SA 2009, Box 9, Item 66.2 <<5656부대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한편 김일성은 남한 측이 예비병들을 활용치 못하게 하고 이들을 북한에서 신규부대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쪽으로부터 예비병을 후송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할 것을 명령했다.<sup>83)</sup>

9월 29일 슈티코프가 상부보고를 위해 외무상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에는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북한군의 혼란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전에 군대를 조직적으로 퇴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기강 해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인해 미군이 제1군을 차단했으며, 문경과 제천에서의 붕괴로 인해 제2군도 차단되었다.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해 올지에 관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물었다. 본인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북한이 38선 방어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sup>84)</sup>

이어지는 보고에서 슈티코프는 미군이 6개 사단과 2개 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주지역으로부터 진출하여 7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군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은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38선을 향해 진군하는 연합군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새로이 편성된 부대들은 수송수단의 파괴와 부족으로 전선으로의 이동이 매우 느리다고 평가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연서로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확인된다. 1950년 9월 29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의 연서로 시작되는 이 전문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시인하였다.

83) 마트베예프가 핀시(스탈린)에게 보내는 암호문 No. 600262/N, 1950년 9월 27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84)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인천(제물포)지역에서의 상륙작전 이전에는 전선에서의 형편이 우리들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적들은 패배를 거듭하면서 남조선 최남단의 작은 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최후의 결정적인 전투들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적들은 인천을 장악하고 서울에서 직접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군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 당신께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적들은 우리 부대들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인천지구에 상륙한 상륙부대와 우리 전선을 돌파한 남부전선부대들을 연결시켜서 서울시를 완전히 장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남부에 있는 인민군 부대들은 적들에 의하여 북부로부터 차단되었으며 남한에 있는 부대들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이제는 탄약, 무기 및 식량을 공급받지 못합니다.<sup>85)</sup>

이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남한에서 동원한 10만명의 군대를 작전상 가장 유리한 지역들에서 이용하면서 장기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전 인민을 무장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sup>86)</sup>

결국 9월 29일자로 슈티코프가 그로미코 외무차관에게 보낸 유선 암호전문에서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군의 직접 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낸다.<sup>87)</sup>

10월 1일 스탈린(필리포프)은 주 북경대사를 통해 마오쩌둥과 주언라이에게 전문을 보냈다. 김일성이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의 직접지

85)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서신,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보충문헌, 1949~1953』.

8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서신,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보충문헌, 1949~1953』.

87)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원을 요청하자 이를 중국 측에 전가하려고 한다.

모스크바는 이미 지난 9월 16일 미군의 제물포 상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제1, 2군을 북쪽의 후방과 차단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북한 동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모스크바는 남쪽으로부터 4개 사단을 신속히 이동시켜 서울 북쪽과 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차 남쪽에 있는 군대의 주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38선을 지킬 것을 권고했었다. 그런데 제1, 2군 사령부는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에 대한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대가 차단당하고 포위당하게 된 것이다. 서울 지역의 북한 동지들에게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부대가 없으며 38선을 향한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88)</sup>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더욱이 북한이 주장하는 전략적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예시하는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북한군은 지휘관들을 우선적으로 북쪽으로 철수하려고 하였다. 스탈린은 ‘철수작업은 중요한 일, 즉 지휘관들을 북쪽으로 철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남쪽에 남아 있는 부대들에게 우선 지휘관부터 단체로든 개별적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북쪽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이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하라고 끝맺고 있다.<sup>89)</sup>

북한군의 전략적 후퇴의 실패와 이로 인한 유엔군 진격에 대한 방어 실패는 맥아더로 하여금 북한 지역의 완전한 수복을 목표로 설정하게 하였고

88) 필리포프(스탈린)이 주 북경대사에게 보내는 전문,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89) 창푸가 마트베예프에게 보내는 전문, 1950년 10월 2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 기본문헌, 1949~1953』, 창푸는 스탈린이 사용했던 가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의 국경으로의 진격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 북한 원조로 이어지게 되어 한국전쟁은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였다.<sup>90)</sup>

## 6. 결 론

한국전쟁 초 북한군의 재빠른 선점으로 인해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전세를 바꾸기 위해 계획된 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상륙할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수뇌부는 전투부대를 나누어 해안방어에 배치하기 보다는 더욱 낙동강 전투에 전력을 집중하여 전 한반도를 석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 수뇌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습작전이었고 이에 따라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괴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고 평가하나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 공식전사가 밝히고 있듯 북한의 군 수뇌부가 전략적 후퇴를 단행했다는 것도 당시 북한과 중국·소련과의 최고위급 전문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9만여 명의 전투병 후퇴는 실제 숫자가 전선에서 이동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북한군의 포로 숫자와 비교해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맥아더로 하여금 전쟁의 주도권을 갖게 했으며 그러한 자신감에 의해 38선 북진과 북한군 괴멸이라는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10월 1일 김일성으로 하여금 스탈린에게 소련군의 직접 참전을

90) 이상호, 앞의 글, 55-57쪽.

요구하기까지 만들었고 결국 유엔군의 38선 북진은 중국의 참전을 불러와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발전했다. 이 모든 전쟁의 확대과정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4. 12, 심사완료일 : 2006. 6. 15)

주제어 :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더글러스 맥아더, 전략적 후퇴, 국제전

K C I

<ABSTRACT>

## Inchon Landing Operations and the Response of the NKPD

Lee, Sang-ho

South Koreans' failure to North Korean sudden attack led to a fierce battle over a US intervention. However successful Inchon Landing Operations had triggered Korean war into a internationally involving conflict. The overall value over Inchon Landing Operations is up to the changes of the military situation and the possibility of the rollback to North Korea. So to speak, Inchon Landing Operations were not only successful themselves, but also caused tremendous characteristic changes for the Korean War.

However up to recently, someone says that Inchon Landing Operations have been overestimated. They assert that North Korean Army(NKA) foresaw the Inchon Landing and completed defenses against it. And it moved tactical retreat against the counteroffensive by United Nations Forces, That is to say, during the time required 13days from Inchon landing to reoccupy seoul, North Korean Army could have prepared against MacArthur's operations.

However if we consider that the tide of adjoining sea of Inchon is very high, the time required 13days from Inchon to Seoul was not a delay. And through investigation to the RG 242-the records s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 and the Russian Sources, we know that NKA didn't have a pre-recognition and a preparation against Inchon Landing Operations.

According to North Korea, NKA succeeded retreat tactical maneuvering and they preserved the main forces. but the number of war prisoners of NKA was over 60,000 immediately after Inchon Landing, then it is proved that NKA's tactical retreat was not a success.

As a conclusion, we know Inchon Landing was a completely surprise attack to NKA, therefore main force of them at the south korea was destructed. The Inchon Landing achievedp a brilliant success and the nature of Korean war had changed into taking the initiative.

Key Words : Korean War, Inchon Landing Operation, Douglas MacArthur, Strategical Retreat, International War

K C I